

이 자료는 2월 9일(화) 조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월 8일(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

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
Agency for SMEs

보도자료



- 문의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협력사업실 김종윤 실장(042-388-0730), 이두찬 책임(042-388-0735)
한국산학연합회 연구기반팀 김민준 팀장(042-720-3320), 류인호 선임연구원(042-720-3325)
- 배포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홍보전략팀 김민철 팀장(042-388-0221), 정민규 책임(042-388-0222)

2021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사업 공고

-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·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
- 기업선도형 과제(기업당 최대 1년, 10백만원), 기반플러스형(기업당 최대 1년, 50백만원) 참여 중소기업 모집 (공고기간 : 1.28(목) ~ 11.30(화), 주관 연구개발기관 접수기간 : 2.24(수) ~ 11.30(화), 운영기관 접수기간 : 2.10(수)부터 상시 접수)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원장 이재홍, 이하 TIPA)은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기반 조성을 위해, 2월 24일(수)부터 11월 30일(화)까지 2021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공고를 시행한다 밝혔다.

동 사업은 '21년 신규사업으로 총 지원 예산은 83억원(기업선도형 20억원, 기반플러스형 63억원)이며,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를 지원한다.

< 2021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사업 개요 > : (참고)

내역사업명	지원규모	지원기간 및 한도*	사업 내용
기업선도형	20억원	최대 1년, 10백만원 (기업부담 30%)	중소기업이 시험·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·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지원
기반플러스형	63억원	최대 1년, 50백만원 (기업부담 30%)	연구개발 목적으로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첨단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려는 중소기업

* 사업 신청 경로 : [연구기반공유시스템(<https://rss.auri.go.kr/>)] → [회원가입] → [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신청] → [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]

그간 중소기업 연구시설·장비 공동활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·기술적 성과 등 다양한 우수성과를 창출해 왔다.

- (주)테토스는 '19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집속이온빔장비(FIB-SEM), X선광전자분광기(XPS) 등의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확보하였으며, 매출액 증가 및 고용창출 성과를 거두었다.

* 매출액 : ('18) 64억원 → ('19) 100억원, 고용창출 : ('19) 6명(직접 2명, 간접 4명)

- (주)옵트레인은 '19년 한국나노기술원의 자동 자외선 노광기(8inch) 등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공동활용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체외진단기기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켰으며, 실시간유전자증폭(PCR) 검사기기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였다.

2021년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중소기업 선택 폭 확대를 위한 연구시설·장비 서비스 강화

- ❶ 중소기업이 원하는 연구시설·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관리시스템(ZEUS, 과기부)에 등록된 모든 공동활용 연구장비*를 바우처와 연계하여 활용한다.

* 연구장비관리시스템(ZEUS) 등록 연구장비 : 33,745점 ('20.10 기준)

- ❷ 중소기업은 첨단기술개발을 위해 첨단연구장비(슈퍼컴퓨터, 방사선 가속기 등)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·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첨단 인프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* 첨단연구장비 보유 기관 현황

- 슈퍼컴퓨터 :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KISTI),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동명대학교
- 방사선가속기 : 포항가속기연구소

연구장비 접근성 확대 및 효율적인 바우처 사용 지원

- ① 연구장비 공동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을 위해 'R&D 인프라 연계 지원단'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동활용 연구장비 발굴 및 사용 등 애로사항을 해소한다.

* R&D 인프라 연계 지원단은 연구시설·장비를 보유한 운영기관의 사업 및 장비 담당자로 구성되며, R&D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보 중소기업 발굴 및 사업 홍보, 장비 보유기관추천, 연구장비 사용(시험·분석 등)에 관한 컨설팅 등을 지원

- ② 실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유효기간을 45일로 조정하고, 바우처를 50% 이상 환불한 기업은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을 통해 바우처 순환을 촉진한다.

- ③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·하반기에 분할 발행*하여 바우처 조기소진을 방지하고 하반기 중소기업 수요를 충족한다.

* (상반기) 총 예산의 70%, (하반기) 총 예산의 30%

<'20년 대비 '21년 주요 변경사항>

구분	연구기반활용사업('20년)	연구기반활용플러스('21년)
바우처 지원한도	(공유확산형) 5백만원 이내 (연구집중형) 70백만원 이내	(기업선도형) 10백만원 이내 (기반플러스형) 50백만원 이내
바우처 유효기간	최대 90일 이내	최대 45일 이내 * 첨단연구장비는 최대 120일 이내
발행한도	1회 2천만원 이내	1회 1천만원 이내

사업 신청은 2월 24일(수)부터 11월 30일(화)까지 신청 가능(신청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)하며,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tech.go.kr) 및 연구기반공유시스템(<https://rss.auri.go.kr>)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참고

'21년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사업 개요

- ☐ **(사업목적)**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·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
 - ☐ **(예산규모)** '21년 83억원 (기업선도형 20억원, 기반플러스형 63억원)
 - ☐ **(지원대상)*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 - ☐ **(사업내용)** 중소기업이 대학·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·장비 및 전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
 - **(기업선도형)** 중소기업이 시험·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·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지원
 - **(기반플러스형)**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·장비 및 서비스*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
- * 첨단장비 및 특수시설(BL3 등) 활용, 장비이용계획 자문,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

내역사업	지원대상	지원조건
기업선도형	대학·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·장비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	최대 10백만원 (기업부담 30%)
기반플러스형	연구개발 목적으로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첨단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려는 중소기업	최대 50백만원 (기업부담 30%)

- ☐ **(추진체계)** 중소벤처기업부(사업총괄)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전문기관), 한국산학연합회(관리기관),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(ZEUS관리기관)
- ☐ **(기대효과)** 기 구축된 R&D인프라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토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 및 연구혁신 기반 조성